

또 다시 중국 늪에 빠진 원화

■ 주간 동향: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재차 강세폭을 확대한 달러화

- ✓모처럼 달러화가 큰 폭으로 상승함.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뜻하지 않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반등이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임
-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 반등 여파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엔화 역시 약세를 보임. 다만, 유로화 하락은 추세적 약세 전환보다는 상승 피로감에 따른 단기 숨 고르기 국면이라고 판단됨
- ✓위안화는 재차 7위안을 목전에 두게 됨. 달러 강세 영향도 있지만 중국 경제 회복 세에 대한 우려감이 위안화 가치 약세 요인으로 작용중임
- ✓원화는 한주만에 다시 약세 전환됨.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위안화 약세 현상이 원화 약세 폭을 확대시킴. 특히, 5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서도 대중 수출이 뚜렷한 반등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등 대중 무역수지를 포함한 전체 무역수지의 적자 현상이 해소되지 못한 것도 원화 약세 폭을 확대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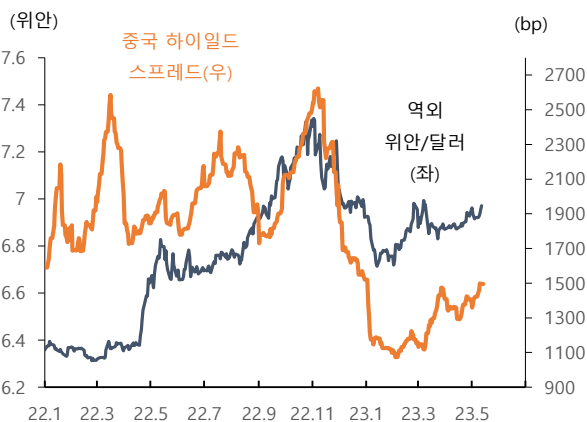
<표>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

	5월 12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102.7	1.45	-0.81
달러/유로	1.085	-1.54	1.35
엔/달러	135.7	0.67	3.49
역외 위안/달러	6.97	0.71	0.71
원/달러	1,334.5	0.88	5.54

■ 금주: 위안 추가 약세 시 원/달러 환율 연고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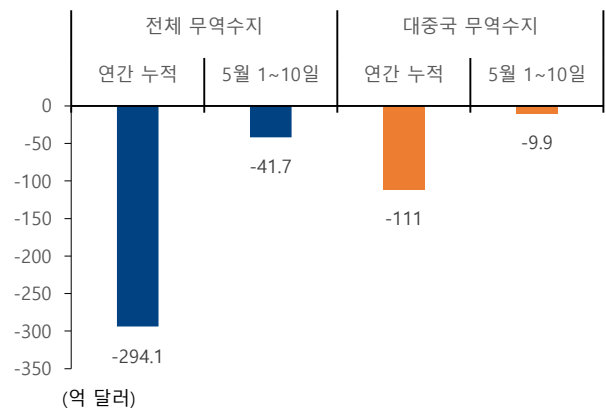
- ✓달러화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 및 경제 지표 부재속에 금주 가장 주목되는 것은 16일 발표 예정인 중국 4월 경제지표임. 중국 4월 경제지표는 일단 큰 폭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동 지표가 위안화 강세를 유발시킬지는 미지수임. 5월 들어 중국 경기 정상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어 4월 경제지표 호조만으로 위안화 강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음. 자칫 4월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위안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5월 19일부터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감도 일부 위안/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G7 정상회담에서 중국 경제 견제 목소리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임
- ✓원화와 위안화간 동조화 현상이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위안/달러 환율이 재차 7위안 수준을 회복할 경우 원/달러 환율도 연고점(5월 2일 1,341.6원)을 재차 경신할 공산이 높으며 동시에 정부의 스무딩오퍼레이션 경계감도 연고점 수준에서 강화될 것임
- ✓금주 환율 예상 밴드는 1,310~1,360원으로 예상함

그림. 재차 불안해지는 위안/달러 환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 5월 들어서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국내 무역수지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